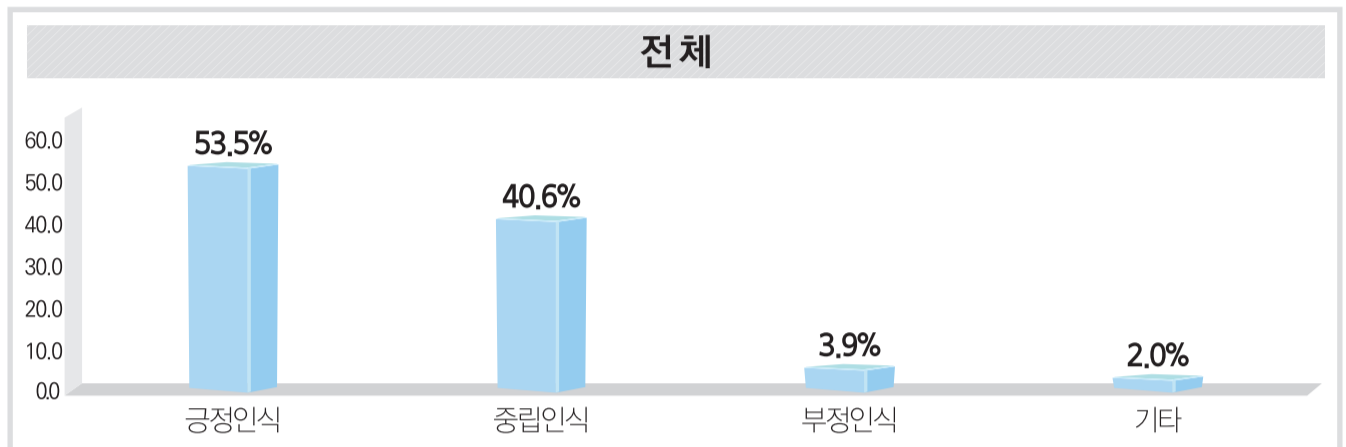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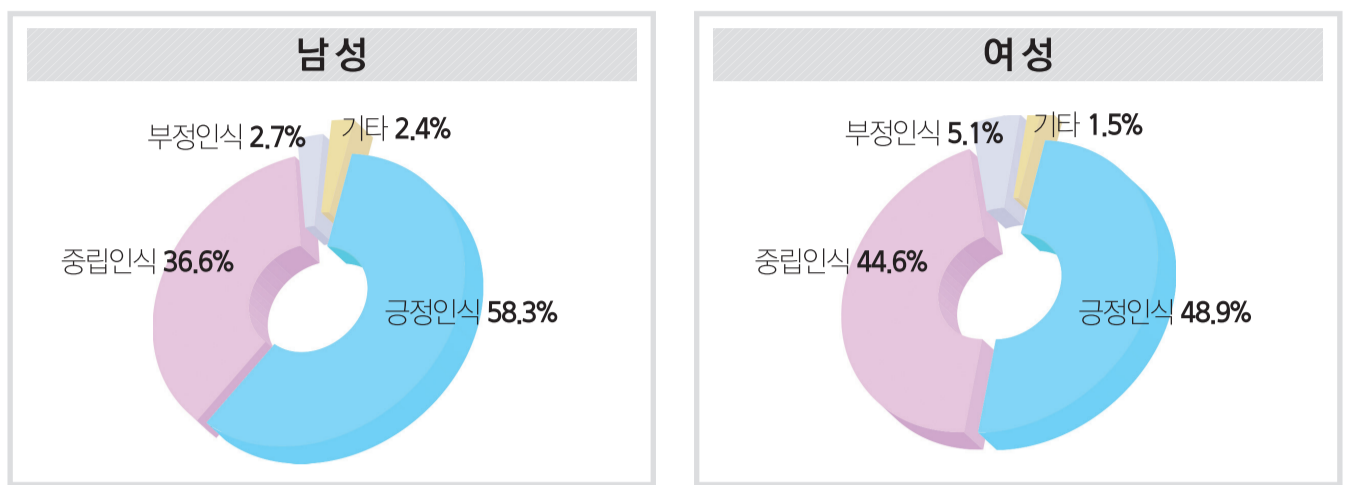


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생 인식과 완화 방안

2019 경상남도 사회조사*를 통해 본 경남도민의 결혼과 자녀, 저출생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

결혼에 대한 견해

- 1 경상도민은 결혼에 대해 긍정인식 53.5%, 중립인식 40.6%, 부정인식 3.9%로 나타남
- 2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중립과 부정인식이 높고 긍정인식이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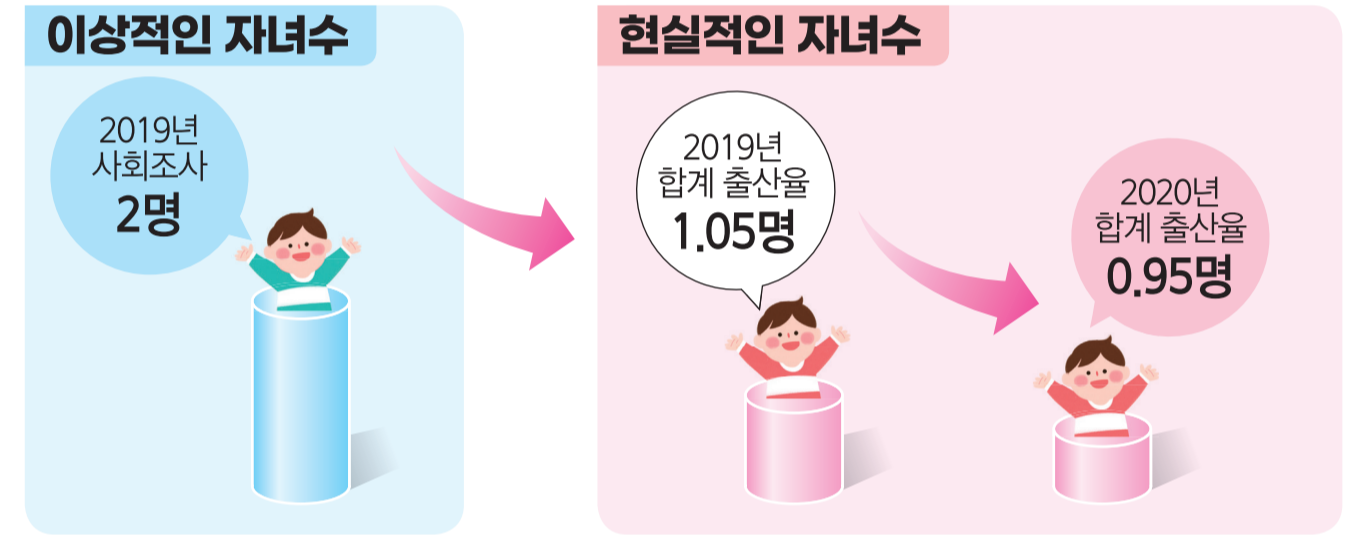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상남도, 경상남도사회조사(2019)

긍정인식(반드시 해야 한다 + 하는 것이 좋다), 부정인식(하지 않는 것이 좋다 + 하지 말아야 한다), 중립인식(해도 좋고, 하지 않아도 좋다)

이상적인 자녀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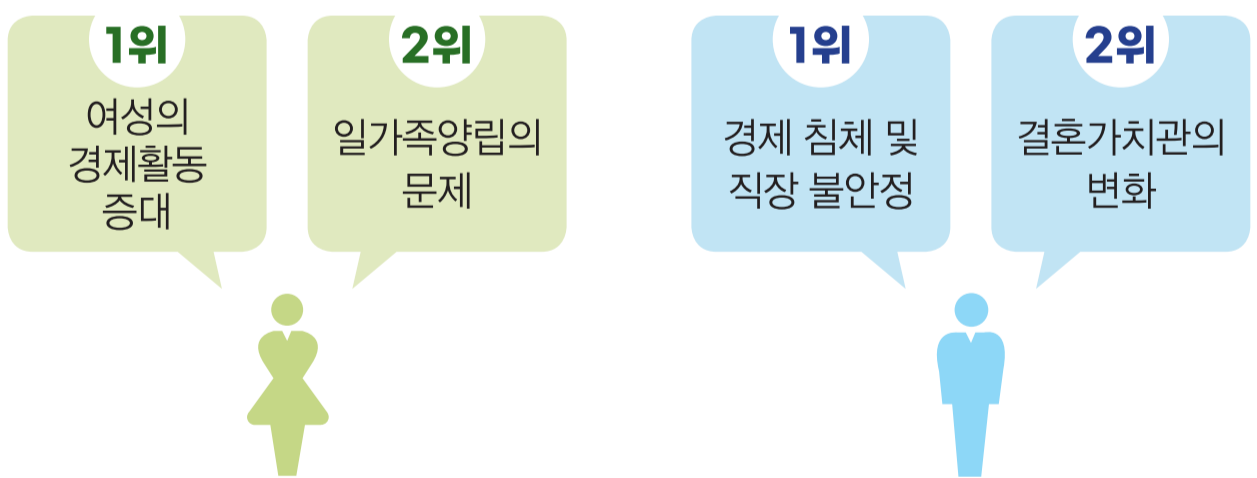
- 1 이상적인 자녀 수는 남녀 모두 '2명(61.3%)'이 가장 높게 나타남
- 2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9년 '1.05명', 2020년 '0.95명'인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

자료 : 경상남도, 경상남도사회조사(2019)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(2019, 2020)

저출생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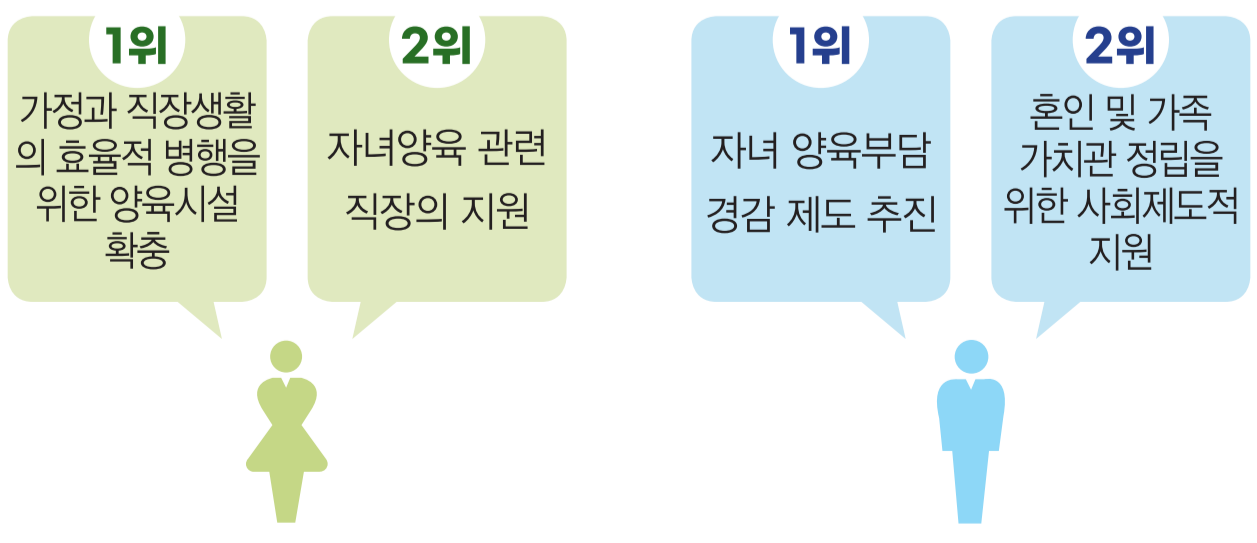
- 1 저출생 이유로는 '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(21.3%)'이 가장 높고, '결혼가치관 변화(19.2%)', '여성의 경제활동 증대(16.6%)', '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(15.2%)' 순으로 나타남
- 2 여성은 1위가 '여성의 경제활동 증대', 2위는 '일가족 양립의 문제'임
- 3 남성은 1위가 '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', 2위는 '결혼가치관의 변화'임



자료 : 경상남도, 경상남도사회조사(2019)

저출생 완화 방안

- 1 저출생 완화 방안에는 '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(30.9%)'이 가장 높고, '자녀 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(22.9%)', '자녀양육 관련 직장의 지원(21.0%)', '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(16.1%)' 순으로 나타남
- 2 여성은 1위가 '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', 2위가 '자녀양육 관련 직장의 지원'임
- 3 남성은 1위가 '자녀 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', 2위가 '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'임



자료 : 경상남도, 경상남도사회조사(2019)

*경상남도 사회조사는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